

2023. 8. 31.(목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8월 30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(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 운영·관리)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(창의혁신 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운영)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(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운영)	도시공간기획담당관	김창규	2133-7640
	건축디자인혁신팀장	최 훈	2133-7609
	건축기획과장	박순규	2133-7090
	건축계획팀장	최홍규	2133-7108
	도시관리과장	하대근	2133-8370
	도시관리정책팀장	유봉모	2133-8372
사진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진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쪽수 : 6쪽	관련 누리집	https://project.seoul.go.kr (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)	

서울시, 민간 건축물 혁신 디자인 청사진 보여줄 6개 기획디자인안 최종 선정

- 4.20~5.19. 공모 후 공정·전문성 담보하는 위원회 운영 등 2번의 워크숍과 2차 심사 거쳐
- ▲디자인 독창성 ▲심미성 ▲공개공지 등 공공성, 장소성, 파급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
- 향후 기획디자인(안) 세부 인센티브 항목(용적률, 높이 등) 및 범위 결정 등 사업 실행 구체화
- 선정된 작품은 ‘서울 도시건축비엔날레’와 연계 9.1.~10.29. 서울길러리에서 전시

서울시가 민간분야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‘도시·건축 창의·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’ 관련 최종 기획디자인(안)으로 6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.

○ 17개 기획디자인(안) 선정결과 : ‘선정 6곳’, ‘미선정 4곳’, ‘보류* 7곳’

* 이번에 보류로 판정받은 디자인(안)은 ▲주변 도시맥락과의 정합성 ▲도시관리계획 변경 필요성 ▲공공성 확보 적정성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, 시는 해당 디자인(안)에 대한 보완 서류를 제출받아 재심의할 예정이다.

- 시는 디자인안이 현실화 된다면, 피라미드형 정원과 수직으로 펼쳐진 도심 속 녹화 주거단지, 백자의 은은한 질감 등 한국적 디자인을 형상화한 랜드마크 등 서울의 매력적인 민간 건축물에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내부 전망대와 휴게공간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.
- ‘도시·건축 창의·혁신디자인 시범사업’은 서울시가 도시 매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‘서울 도시·건축 디자인 혁신방안’의 일환으로, 노들섬 디자인 공모 등 공공분야 디자인 혁신과 함께 민간분야의 창의적·혁신적인 디자인 건축물 확산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프로젝트다.
 - 이번 공모는 「창의·혁신디자인」이라는 개념을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건축 분야로 확대해 서울시 창의·혁신디자인 정책 방향과 기준을 실제 민간사업에 반영, 현실화하는 최초의 사업이자 공모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.
- 앞서 시는 민간분야의 창의·혁신 디자인을 대표할 건축물 선정을 위해 지난 4월 20일(목)부터 5월 19일(금)까지 한 달간 공모를 진행했다. 이후 2번의 민관 합동 워크숍에서 시가 추구하는 창의·혁신 디자인의 정책 방향과 민간이 제안한 기획디자인(안)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, 2차 선정 과정을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.
 - 시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는 도시건축 디자인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한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했다. 서울총괄건축가를 위원장으로 한 선정위원회는 서울시 도시, 건축을 총괄하고 있는 실·국장 공무원 3명과 현재 각종 위원회에서 전문가로 활동 중인 외부 전문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.

- 평가 주안점은 세부적인 건축계획, 설계도면 등이 없는 기획디자인(안) 평가임을 고려해, ▲대상지의 장소적 특성 ▲디자인 컨셉 ▲상징성 ▲혁신디자인 여부 ▲공공성 및 사업 파급성까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다.
- 구체적으로는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 29개 항목과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 7개 항목을 기준으로 기획디자인(안) 적정 여부를 평가했다.

- 선정된 주요 대상지로는 ▲UrbanTable ▲‘테라스형 도심 녹화 주거단지’* ▲테라리움 ▲‘K-PROJECT 복합문화시설’* ▲‘도화서길 업무시설’* ▲‘서울 트윈픽스’* 등이다.

- ‘UrbanTable’는 외부 수직면을 관통하는 녹색공간 조성과 저층부 시민 등 공공을 위한 휴게 복합공간을 제시해 공공성을 인정받았다.
- ‘테라스형 도심 녹화 주거단지’는 저층부 피라미드형 정원과 녹지의 수직적 연속성을 잘 표현하여, 새로운 주거형태 모델을 보여줬다는 평이다.
- ‘테라리움’은 중층부에 독창적인 디자인의 스카이 가든과 공원형의 실내 테라리움 조성을 제시했다.
- ‘K-PROJECT 복합문화시설’은 사각형과 원형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심미성 높은 디자인과 플랫폼 구조를 이용한 새로운 업무공간에 대한 창의성을 인정받았다.
- ‘도화서길 업무시설’은 백자의 은은한 질감, 주변 지역의 전통역사 맥락을 고려한 외부 디자인과 상부의 스카이 갤러리에 대한 공공성을 인정받았다.
- ‘서울 트윈픽스’는 한국의 산 이미지를 형상화하여, 기존에 없는 새로운 디자인을 통해 획일적 도시공간에 역동적 스카이라인을 제공했다.

*해당 명칭은 민간사업자가 붙인 대상지 명칭임.

- 강병근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 위원장(서울시 총괄건축가)는 “신진 건축가부터 세계 우수 건축가까지 다양한 건축가들이 참여한 이번 공모에

평가위원을 맡게 돼 영광이다”며, “디자인의 독창성, 창의성 뿐만 아니라, 창의·혁신 디자인을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공공성을 디자인에 어떻게 반영·표현했는지에 대해서도 주안점을 두고 선정을 했다”고 심사평을 전했다.

- 선정된 기획디자인(안)은 향후 사업 시행을 위한 용적률, 높이 등 세부 인센티브 항목과 인센티브량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한편, 도시관리계획 수립(변경)에 필요한 기획디자인(안)의 경우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,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.
- 시는 이번 공모 이후에도 민간분야 디자인 혁신 활성화를 위해 추가 공모 또는 수시 접수 등 추진방법, 사업 시기와 대상, 운영계획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.
- 아울러, 시는 선정된 디자인 작품을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과 연계해 오는 9월 1일(금)부터 10월 29일(일)까지 서울길러리(시청역~프레스센터 연결통로 벽면)에서 전시할 계획이다.
-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“민간부문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공모를 통해 업(숙), 근(업), 진(지)의 서울 도시가 다채롭고 다양한 표정을 가진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”며, “기획 디자인(안) 선정 후에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연번	사업명	대표이미지	평가 의견
1	UrbanTable (종로구 관철동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부 수직면을 관통하는 녹색공간 조성 저층부 시민 등 공공을 위한 휴게 복합공간 제공
2	테라스형 도심 녹화 주거단지 (강남구 청담동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저층부 피라미드형 정원과 녹지의 수직적 연속성을 표현
3	테라리움 (강남구 청담동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층부에 제안된 독창적인 스카이가든과 공원형의 실내 테라리움 조성
4	K-PROJECT 복합문화시설 (성동구 성수동2가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각형과 원형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심미성 높은 디자인과 플랫폼 구조를 이용한 새로운 업무공간에 대한 창의성이 돋보임
5	도화서길 업무시설 (종로구 수송동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역사문화지역의 맥락에 어울리는 건축 형태를 제안하여, 백자의 은은한 질감 등 한국적 디자인 모티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

연번	사업명	대표이미지	평가 의견
6	서울 트윈픽스 (강남구 역삼동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의 산 이미지를 형상화하여, 기존에 없는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하였으며, 획일적 도시공간에 역동적 스카이라인을 제공